

어린이집 CCTV 관련 뉴스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

Frame Analysis on the News About CCTV in Day Care Center

오 지 은¹⁾
Ji Eun Oh

정 혜 옥²⁾
Hoe Wook Chung

윤 빛 나 리³⁾
Bit Na Ra Yun

I. 서론

2015년에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¹⁾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해당 사건은 아동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이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공개되면서 이슈화되었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일게 했다.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게 되었고(보건복지부, 2015a),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강력한 여론이 지속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2015년 5월 18일 「영유아보육법」제15조 4항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의 조항이 신설되며 어린이집 CCTV 설치가 법제화되었다(보건복지부, 2015b). 이에 2015년을 기점으로 어린이집 CCTV와 관련한 텔레비전 뉴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텔레비전 뉴스가 대중들의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매체에 비해 높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언론 매체 중 텔레비전 뉴스가 78.1%로 가장 높은 신뢰도를 얻었다. 즉, 대중들은 다른 어떤 매체보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쉽게 받아들이고, ‘사실’로 인정한다. 이는 텔레비전 뉴스가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영상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영상 이미지는 카메라를 통해 현실의 인물과 언어적 요소 등을 복제한 것처럼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최민재, 2004). 그러나 사람들이 신뢰하는 만큼 텔레비전 뉴스가 정확한 실재를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텔레비전 뉴스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으며 사회적 실재를 규정하는 ‘하나의 틀’이기 때문이다(김윤정, 2005). 뉴스는 보도

2015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정책이 도입 되었고, 그 후 뉴스방송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이슈로 다루어왔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CCTV를 통해 바라본 아동학대 관련 보도가 뉴스 보도과정에서 어떻게 재해석되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Iyengar (1990), Semetko와 Valkenburg (2000)의 프레임 분석 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어린이집 CCTV 관련 뉴스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KBS에서 2015년 9월부터 2017년 12월 까지 보도된 25건의 관련 방송뉴스이다. 연구결과, 첫째, 형식적 프레임분석 과정에서 심층보도하는 ‘주제중심적 프레임’보다는 단편적인 ‘사건중심적 프레임’과 ‘사건+주제중심적 프레임’이 주로 나타났다. 둘째, 내용적 측면에서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에 중점을 두어 아동학대 사건을 전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린이집 CCTV 관련 뉴스보도 프레임은 CCTV 설치를 아동학대 예방의 절대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CCTV 민생 담론’, 보육교사를 죄인으로 보는 ‘범죄자 담론’, 보육교사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보는 ‘비전문가 담론’ 등의 지배적인 담론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CCTV 관련 뉴스에 담긴 보도가 절대적이고 공정한 사실이 아닌 특정한 지식과 담론을 생산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대중매체의 이데올로기 전달체로서의 기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 주제어: 아동학대
CCTV
어린이집
프레임 분석

1) 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생, 제1저자
2)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공동저자
3) 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생, 교신저자
(kjlh4327@hanmail.net)

1) 2015년 1월 8일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급식시간 중에 보육교사가 4살짜리 원생이 남은 반찬을 다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렸던 사건

하고자 하는 한 가지 이슈나 사건에 집중하여 현실을 재구성한다(유정선, 2009). 이처럼 이슈 혹은 사건이 지닌 여러 측면 가운데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뉴스의 속성을 '프레임'이라고 하며(김명희, 2000), 뉴스 프레임은 사건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현실을 새롭게 의미 짓고 해석한다. 다시 말해, 뉴스에 보도된 실재는 사회적 현안을 객관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닌, 뉴스 프레임에 의해 재해석되고 재구성된 것이다(양승목, 2010).

이러한 과정에서 van Dijk(2007)는 뉴스가 지배 집단이 요구하는 혹은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특정 담론을 형성하며 그들이 지닌 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황지영, 2014 재인용). 이때 뉴스는 우세한 집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정치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힘을 부여하는 이데올로기적 전달체로 작동한다(Entman, 1975/2013). 더불어 뉴스를 통해 생산된 지배적 프레임은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시청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사실'로 수용하게 하는 헤게모니적 특징을 갖는다(Gitlin, 1980). 이는 뉴스 구조의 특성상, 실제 이를 제작하는 '말하는 주체'는 가려진 채 '보는 이' 즉, 시청자들이 스스로를 뉴스 해석의 주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최민재, 2004). 그러나 뉴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중매체는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보도 방식을 통해 특정한 이미지와 지식을 생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이희영, 김정기, 2016). 이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 관련 뉴스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아동학대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보육교사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는 대중매체의 보도에 의해 매우 부정적으로 형성된 것이 사실이다(최은정, 곽은순, 2017).

아동학대 뉴스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나영이 사건'이나 '김길태 사건'과 같은 아동 성폭력 범죄보도를 분석한 연구(양정혜, 2010; 권인숙, 이화연, 2011)가 있으며, 부모가 학대행위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김희승, 2016; 정의철, 이창호, 2017)와 아동학대 뉴스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을 실시하여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밝히고자 했던 연구(김해연, 강진숙, 2016)가 있다. TV 뉴스를 중심으로 실시한 연구로는 유일하게 최은정과 곽은순(2017)의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는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에 나타나는 보육교사의 이미지에 대중매체가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아동학대 사건을

어린이집 CCTV 관련 뉴스보도를 통하여 보고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되는 지배적 담론을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에 어린이집 CCTV 관련 뉴스의 보도 경향을 분석하여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담론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Iyengar(1990)의 형식적 프레임, Semetko와 Valkenburg(2000)의 내용적 프레임 기준을 사용하여 대중매체 속 지식 생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어린이집 CCTV 관련 뉴스보도의 형식적 프레임은 무엇인가?

연구문제2. 어린이집 CCTV 관련 뉴스보도의 내용적 프레임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지상파 방송 중 하나인 KBS에서 보도된 어린이집 CCTV와 관련된 뉴스 25건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송사별 보도경향 비교보다는 전반적인 보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으로, 2017년 방송 매체 신뢰도 조사결과(변진경, 2017), 지상파 방송 중 가장 높은 신뢰도(21%)를 차지한 KBS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뉴스보도 기간은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실시된 2015년 9월 19일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보도된 어린이집 CCTV 관련 뉴스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2015년 9월 1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다. CCTV 설치 의무화가 법제화된 후의 방송 뉴스를 분석하는 이유는 아동학대사건의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된 CCTV의 실효성에 대해 파악하고 CCTV에 포착된 아동학대사건이 뉴스보도를 통하여 비취지는 양상을 보기 위해서이다. 분석대상 방송 뉴스를 검색한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KBS에서 보도된 방송 뉴스는 통합검색이 가능한 인터넷 포털사이트(www.naver.com)에서 뉴스 검색을 하였다. 검색의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뉴

스검색 기간을 2015년 9월 1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유형은 동영상으로, 언론사는 KBS 뉴스로 선정하고, 키워드를 ‘어린이집’, ‘CCTV’로 1차 검색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검색된 뉴스는 총 54건이었으며, 선별된 기사들 중 어린이집 CCTV와 관련되고, ‘아동학대’ 사건을 다룬 뉴스로만 한정하기 위해 ‘아동학대’ 키워드에 추가하여 2차 재검색을 시행하였고 관련이 없는 뉴스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니 34편이었다. 중복되는 뉴스는 가장 최근에 보도된 뉴스로 선정하고 나머지 뉴스들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분석대상 뉴스는 총 25편이었다. 분석대상 뉴스 기사제목들 제시한 목록은 표 1에 제시하였다.

2. 분석기준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 관련 뉴스에서 나타나는 뉴스의 형식적 프레임과 내용적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형식적 프레임은 Iyengar와 Simon(1993), 김윤정(2005), 그리고 설진아와 조아라(2017)의 분석기준을 적용하여, 사건중심 프레임, 주제중심 프레임, 사건+주제중심 프레임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Iyengar와 Simon(1993)에 따르면, 사건 중심 프레임은 사건에 대해 단순 정보 전달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수용자들의 감정적 반응을 높이며 강조하고자 하는 장면을 부각시키는데는 유용하지만 수용자들이 뉴스에서 나오는

표 1. 분석 뉴스 목록

구분	보도날짜	보도제목
1	2015.12.14	또 어린이집 ‘아동학대’...책상 밀어 치아 부러뜨려
2	2016.01.28	어린이집서 아동 학대 의혹...경찰 조사
3	2016.02.18	16개월 유아 승합차에 치여 숨져
4	2016.03.23	어린이집 CCTV 꺼놔도...처벌은 ‘숨방망이’
5	2016.05.03	[뉴스 따라잡기] CCTV 있어도...또 어린이집 학대 논란
6	2016.05.22	목 조르고 때리고...어린이집 학대 동영상 공개
7	2016.05.24	[뉴스 따라잡기] 아이 목을 조르고...또 어린이집 ‘아동학대’
8	2016.05.25	교사 1명이 23명 ‘초과보육’...말 뿐인 학대 예방
9	2016.09.05	‘식판 엮고 쥐어 박고’...아동 7명 학대 ‘입건’
10	2016.09.08	어린이집에서 3살 남아 숨져...보육 교사 긴급체포
11	2016.09.11	‘원생 학대 의혹’ 어린이집 교사 수사
12	2016.10.13	‘원생 학대 혐의’ 어린이집 원장 등 입건...혐의 부인
13	2016.12.12	어린이집 CCTV 공개 실험...효과는?
14	2016.12.12	‘억지로 먹이고 때리고’...또 어린이집 아동 학대
15	2016.12.13	[고현장] 또 어린이집 아동 학대...두 얼굴의 보육교사
16	2016.12.13	잇단 아동학대...경찰 수사 착수
17	2017.02.04	공립 유치원 2%만 CCTV 설치...학대 사각지대
18	2017.02.20	“아이가 잘못해 화상”...CCTV 보니 ‘거짓말’
19	2017.02.24	아동학대 10년 새 3배↑...대책 실효성 있나?
20	2017.04.10	사위하다 2도 화상?...못 믿을 어린이집
21	2017.04.10	행주로 닦아 털어 먹이고·밀치고...또 어린이집 학대
22	2017.04.18	[글로벌 브리핑] 아이가 화풀이 상대?...잇단 학대 파문
23	2017.04.27	[심층리포트] 아동학대해도 또 ‘평가 인증’...누굴 믿고 아이 맡기나
24	2017.05.02	사전 고지 후 단속...유명무실 CCTV 점검
25	2017.06.23	“정서적 학대” 기소도 안 했다”...“분통”

공적인 사건을 개인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서 사건의 배경보다는 당사자와 결과에만 초점을 두어 파악하게 된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에 비해 주제중심 프레임은 사건에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이에 노출된 수용자들은 뉴스를 포괄적인 사건으로서 바라보고 사건의 원인과 해석 등에 관심을 가지며 구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프레임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뉴스기사를 분석하기 위해 김윤정(2005)과 설진아와 조아라(2017)의 연구에서 사용한 ‘사건+주제중심 프레임’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프레임 유형별 세부적인 분석기준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 관련 뉴스에서 나타나는 내용적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해서 Semetko와

Valkenburg(2000)가 제시한 5가지 프레임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Semetko와 Valkenburg(2000)는 5가지 프레임 중 책임귀인 프레임과 갈등 프레임은 비교적 신중한 언론매체에서 사용하는 것에 비해 인간흥미 프레임은 선정적인 매체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설진아, 조아라, 2017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초별 읽기를 통해 제시된 프레임 중 ‘경제적 프레임’을 제외하였는데 전체 분석대상 중에서 ‘경제적 프레임’이 나타나는 뉴스는 단 한 건이었으며 지배적인 프레임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분석기준으로 확정된 4개 프레임의 조작적 정의는 분석대상에서 나타나는 주제, 사건 당사자, 보도방식 등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에 맞게 구체화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형식적 프레임 분석기준

프레임 유형	기준
사건중심 프레임	- 구체적인 예시 혹은 특정한 사건으로 공적인 이슈를 묘사하는 보도형식으로 시각적인 요소가 강조되며 인터뷰를 사용하여 사건의 현장감을 보여주는 경우
주제중심 프레임	- 공적인 이슈를 일반적 혹은 추상적인 맥락 위에 위치시키는 보도방식으로 원인과 결과, 통계적 자료, 전문가의 증언 등을 강조하며 일반적 결과 혹은 조건에 대한 해석적인 심층 분석이 나타나는 경우
사건+주제중심 프레임	- 사건중심프레임 또는 주제중심프레임 중 하나로 구분되지 않거나 두 가지 보도방식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

표 3. 내용적 프레임 분석기준

프레임 유형	기준
갈등 프레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개인, 그룹, 또는 단체 간의 갈등을 강조하는 프레임 - 뉴스가 개인 간(교사와 부모)의 갈등 자체에 초점을 두는가? - 뉴스가 집단 간의 갈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 뉴스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어느 쪽의 입장을 더 많이 언급하는가?
인간적 흥미 프레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이슈, 또는 문제를 제시할 때 사람의 얼굴 또는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프레임 - 뉴스를 보도할 때 시청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개인적 일화(스토리)나 영상, 그림, 사진 등을 제공하는가? - 뉴스가 분노, 공감-관심, 동정심, 또는 연민의 감정을 끌어내는 형용사 또는 개인적인 말이나 행동을 쓰는가? - 뉴스가 개인과 그룹이 어떻게 아동학대 이슈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가?
도덕성 프레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문제, 또는 이슈를 도덕적 방안의 맥락에 위치해 놓고 도덕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회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프레임 -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보육교사가 도덕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언급/판단하고 있는가? -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보육교사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가?
책임귀인 프레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슈나 문제의 발생 원인이나 해결의 책임을 정부 또는 개인 또는 그룹에 부여하는 프레임 - 뉴스에서 개인에게 이슈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가? - 뉴스에서 정부/집단에게 이슈나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가? - 뉴스에서 이슈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3. 자료분석

뉴스를 프레임별로 분류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25건의 뉴스기사에 대한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뉴스기사 분석 중 누락되는 기사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25건의 뉴스기사의 순번, 뉴스제목, 보도날짜, 영상링크 주소를 한글 파일에 기록한 후 뉴스 전문을 저장하였다. 둘째, Iyengar와 Simon(1993)의 형식적 프레임과 Semetko와 Valkenburg(2000)의 내용적 프레임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한 분석기준에 따라 공동연구자 2인이 예비 분석을 실시하여 각 기사별 프레임을 1차적으로 도출해내었으며, 기사 코딩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1차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연구자 2인의 상호간 평균 일치도를 구한 결과 80% 이상의 일치도를 보였다. 2차 분석에서는 동일한 기사 내에서 중복되는 프레임을 제외하였다. 셋째, 방송뉴스에서 나타나는 영상 이미지들도 하나의 담론으로 보고(황인성, 2007), 뉴스 기사별 영상링크를 활용하여 기사별 프레임과 뉴스 영상의 관련성 및 영상에서 나타난 담론을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전문가 1인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고 예비연구를 거쳐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 관련 뉴스보도의 형식적 프레임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CCTV 관련 뉴스보도의 형식적 프레임을 ‘사건 중심 프레임’, ‘주제 중심 프레임’, ‘사건+주제중심 프레임’으로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뉴스의 형식적 프레임 보도비율을 분석해본 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았다.

표 4.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 관련 뉴스보도의 형식적 프레임

프레임 유형	기사건수	빈도(%)
사건중심 프레임	13(52.0)	
주제중심 프레임	0(0.0)	
사건+주제중심 프레임	12(48.0)	
전체	25(100.0)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건중심 프레임이 13건(52.0%)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사건+주제중심 프레임이 12건(48.0%)으로 뒤를 이었다. 주제중심 프레임 뉴스는 해당 기간 동안 보도되지 않았다. 사건중심 프레임을 채택한 뉴스는 피해자 인터뷰를 제시하고 CCTV 영상에 포착된 학대장면을 편집 보도하며 사건의 현장감을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 강조하고 있었다. 한편 전체 분석대상 중 ‘심층보도’라고 명시된 뉴스보도는 주제중심 프레임에 해당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해당 뉴스를 실제로 분석해본 결과, 주제중심 보다는 사건중심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건+주제중심 프레임’으로 분류하였다. 사건+주제중심 프레임을 따르는 뉴스는 사건의 원인분석이나 해결안을 제시하는 심층보도는 거의 없었고, 사건중심 프레임의 뉴스보도 후반부에 한 두 줄의 평가나 제언이 덧붙여지는 형식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사건+주제중심 프레임’으로 분류되는 뉴스들에 드러난 주제들은 대체적으로 부모와 교사의 신뢰 회복이나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보다는 CCTV 설치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표면적인 대책을 세워 뉴스가 보도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방송 뉴스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의 발생 원인이나 구조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단순히 사건에 대해 서술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 관련 뉴스보도의 내용적 프레임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 관련 뉴스보도의 내용적 프레임을 Semetko와 Valkenburg(2000)의 5가지 유형의 프레임 중 ‘경제적 프레임’을 제외한 ‘갈등 프레임’, ‘인간적 흥미 프레임’, ‘도덕성 프레임’, ‘책임귀인 프레임’ 4가지로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1) 갈등 프레임

본 연구에서 살펴본 어린이집 CCTV 뉴스 기사에서는 개인 간 갈등인 부모-교사 갈등이 나타났다. 어린이집 CCTV 뉴스 보도에서 나타나는 개인 간 갈등은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을 통해 추론해 낼 수 있는 갈등이었다. 하지만 간혹 현장 인터뷰 등을 통해 보다 가시적으로 갈등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

었다. <“아이가 잘못해 화상”…CCTV 보니 ‘거짓말’(2017. 02. 20)>의 현장 인터뷰에서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순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해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안 하면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이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영상 속 피해 아동 부모들이 교사의 입장과 대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 간 갈등은 부모-교사 뿐 아니라 원감 혹은 어린이집 관리자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났다. <아동학대 10년 새 3배 ↑…대책 실효성 있나?(2017. 02. 24)>에서 보호자가 “원감이 못 보여 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112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했더니 CCTV가 작동도 잘 안 되고 비밀번호도 모르고…”라고 말하며, CCTV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원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원감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CCTV 뉴스에 나타난 갈등 상황은 기자나 앵커의 해설보다는 직접적인 현장 인터뷰나 녹취 파일 등으로 전달되고 있었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상대방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각자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줌으로써 갈등 상황의 대비와 긴장감을 잘 나타내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 인터뷰와 녹취 파일은 학부모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었으며, 학부모가 교사나 기관을 불신하는 모습 혹은 교사의 주장이 거짓임을 토로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2) 인간적 흥미 프레임

어린이집 CCTV 뉴스 25건 중 18건의 뉴스가 앵커멘트 직후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으로 보도를 시작하였다. 뉴스 진행 과정에서는 학대 영상 및 피해 아동의 상해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렇듯 여과 없는 시각적 자료의 선정은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감성적인 측면을 끌어내게 된다. 아동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은 뉴스의 첫 시작뿐 아니라 이후에도 끊임없이 등장했으며, 핵심적인 학대 장면은 클로즈업하여 보여주거나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여 시청자들이 해당 장면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끔 하였다. <16개월 유아 승합차에 치여 숨져(2016. 02. 18)>에서는 교사가 누워있는 아이들을 때리고 이불을 뒤집어씌우는 장면을 클로즈업하였고, <[Go!현장] 또 어린이집 아동 학대…두 얼굴의 보육교사

(2016. 12. 13)>에서는 아동학대 장면만으로 뉴스를 구성하였으며, 학대 장면을 두 번 클로즈업한 후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같은 장면이 여러 번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였다. 이외의 기사에서도 한 기사 내에 똑같은 학대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주며 많으면 6번까지도 동일한 장면을 보여주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상태를 설명하며 실제 앞니가 부러진 사진이나 심하게 화상을 입은 사진, 온 몸에 멍이 든 사진 등을 함께 보도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아동학대 관련 뉴스에서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학대 영상이나 상해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건에 대한 흥미를 위주로 뉴스를 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뉴스 보도 시 아동학대 CCTV 영상을 보육교사의 행동과 피해 아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거나 과장되게 표현하는 내레이션과 함께 보도하였다. <또 어린이집 ‘아동학대’…책상 밀어 치아 부러뜨려(2015. 12. 14)>에서는 리포터가 “네 살배기 아이 두 명이 책상과 벽 사이에 끼인 채 쓰러졌습니다.”라고 묘사하였으며, <[뉴스 따라잡기] CCTV 있어도…또 어린이집 학대 논란(2016. 05. 03)>에서는 “보육교사가…가슴과 턱을 툭툭 때리고, 일으켜 세워 질질 끌고 가기도 합니다.”라고 하여 CCTV 영상에는 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레이션을 사용하여 해당 장면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하였다. <목 조르고 때리고…어린이집 학대 동영상 공개(2016. 05. 22)>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세 살짜리 여자 아이의 두 팔을 잡고 세웁니다. 이어 양손으로 목을 잡아 들어 올립니다. 공중에 들린 아이는 발버둥을 칩니다.”라고 하는 등 본 연구에서 살펴본 뉴스의 모든 CCTV 영상에는 내레이션이 있었으며, 내레이션을 할 때 “거칠게 밀치더니”, “사정없이 얼굴을 때리기도”, “화풀이하듯 학대 행위를”, “내동댕이 칩니다”, “억지로 삼키게” 등의 말들을 불필요하게 자주 사용하여 보육교사에 대해 시청자들이 감정적 흥분을 일으키게끔 유도한다고 판단되었다.

뉴스에서는 학부모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담긴 인터뷰나 녹취파일을 사용하여 대중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였다. <목 조르고 때리고…어린이집 학대 동영상 공개(2016. 05. 22)>에서는 학대 영상 사이에 “어떡해. 흑흑흑”하고 흐느껴 우는 학부모의 목소리를 넣어 학부모가 아파하는 감정을 여실히 드러내었으며, <[뉴스 따라잡기] 아이 목을 조르고…또 어린이집 ‘아동학대’(2016. 05. 24)>에서는 “지금도 잠을 잘 못자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제가 눈에 안 보이면 되게

불안해하거든요”라는 진술을 들려주며 피해 아동 학부모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을 이끌어 내었다. 이러한 뉴스 보도는 대중들이 학부모에게는 공감하도록 함과 동시에 학대 가해자인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갖게 하여, 사건의 원인 혹은 사건과 연관된 다양한 맥락은 무시하고 학대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도록 한다.

3) 도덕성 프레임

어린이집 CCTV 뉴스 영상에는 보육교사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들이 보도되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경찰 조사(2016. 01. 28)>에서는 “낮잠을 안자는 3살 아이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게 한 혐의로”라는 부분에서 연령에 맞지 않는 영상물 시청을 “강제로”하게 했다는 점을 언급하여 보육교사의 비도덕적인 면을 나타내었으며, <[뉴스 따라잡기] CCTV 있어도…또 어린이집 학대 논란(2016. 05. 03)>에서는 피해 아동 어머니가 “선생님께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깐 말을 계속 돌려대면서…”라고 말하는 장면을 넣어 변명하는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심지어 <어린이집에서 3살 남아 숨겨…보육 교사 긴급체포(2016. 09. 08)>에서는 보육교사로 인해 아동이 사망했음을 드러내며 반인륜적인 교사의 행동을 강조하였고, “긴급체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보육교사를 사건을 일으킨 후 도망치다 잡힌 범죄자처럼 묘사하고 있었다.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는 아동학대 장면과 엇갈리는 보육교사의 말이나 행동을 CCTV 영상과 함께 보여줌으로써 보육교사가 도덕성이 결여되었음을 명백히 하고 있었다. <또 어린이집 ‘아동학대’…책상 밀어 치아 부러뜨려(2015. 12. 14)>에서는 교사가 책상을 세계 밀어 유아에게 부딪히는 장면을 배경으로 “CCTV를 확인했더니 선생님이 그런거죠. 그때서야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는…”과 같은 학부모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여, 보육교사의 잘못된 행동을 강조하고 있었다. <‘아이가 잘못해 화상’…CCTV 보니 ‘거짓말’(2017. 02. 20)>에서는 제목에서부터 “거짓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교사의 부도덕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더 나아가 탁자 위에 놓인 보온병이 교사의 손에 의해 쓰러지는 장면과 “어린이집 측은 아이들의 잘못이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은폐하려 했습니다.”라는 기자의 발언을 동시에 보도하여 보육교사의 인성적 자질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보도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뉴스에서 학대 정황에 대해 둘러대고, 변명하고, CCTV 영상에 확실히 찍힌 사실에 대해 거짓말만하는 보육교사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은 보육교사의 비인격적인 측면을 두드러지게 한다. 이러한 경향의 뉴스가 지속적으로 보도되어 사람들의 인식에 굳게 자리 잡으면 대중들은 점차 보육교사를 불신하게 되고 교사를 존중하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 특히 보육교사의 행동에 대한 학부모와의 인터뷰 과정에서는 학부모뿐 아니라 제작진조차 “선생이 그런거죠”, “(교사를 일컬어) 자기는”, “원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등과 같은 격식 없는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교사를 몰아붙이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듯한 인상을 주었고, <어린이집 CCTV 공개 실험…효과과는?(2016. 12. 12)>에서는 “실제로 보면 더 안심 된다는 게 있거든요.”라는 학부모의 인터뷰를 통해 보육교사를 범죄자와 같이 CCTV를 통해 감시해야 하는 대상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4) 책임귀인 프레임

어린이집 CCTV 뉴스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간혹 교사를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CCTV를 소홀히 관리했다는 점에서 학대 사건의 책임을 기관 혹은 정부에게 전가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뉴스 보도 시 아동학대 발생 원인을 개인뿐 아니라 기관에 묻는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학대의 원인을 교사 개인에게 부여하는 비중이 높았다.

아동학대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보육교사 개인에게 돌리는 양상은 피해 유아의 부모 및 어린이집 원장의 인터뷰나 앵커 멘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뉴스 따라잡기] CCTV 있어도…또 어린이집 학대 논란(2016. 05. 03)>에서 피해 부모가 “사고 친 선생님이 잘못이죠.”라고 말하며 책임소재를 교사 개인에게 한정 짓고 있었으며, <‘아이가 잘못해 화상’…CCTV보니 ‘거짓말’(2017. 02. 20)>에서도 어린이집 원장이 “꿈에도 선생님이 하신 줄은 몰랐네요. 선생님이 확실한 보고를 했으면 제가 더 적극적이었을텐데…”라고 말하며 본인의 책임은 회피함과 동시에 교사에게 원인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또 어린이집 ‘아동학대’…책상 밀어 치아 부러뜨려(2015. 12. 14)>에서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가 “보육교사들의 인

성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 씨는 이 어린이집에서 정기적으로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등의 언급을 하며 제도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교사 개인의 문제로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2017년에 접어들면서는 학대사건에 대한 책임을 보육교사 개인뿐 아니라 기관 혹은 정부 등의 사회적 차원으로 돌리기도 하였다. <[심층리포트] 아동학대해도 또 ‘평가인증’…누굴 믿고 아이 맡기나(2017. 04. 27)>에서는 정부가 보육의 질을 공식 인정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어린이집 평가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사건 고지 후 단속…유명무실 CCTV 점검(2017. 05. 02)>기사에서는 “학대 의혹이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CCTV를 고의로 삭제하는 등…”이라고 말하며 어린이집 CCTV 관리·감독이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함을 주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CCTV 관련 뉴스 25건 중 단 2건만이 학대 사건의 책임을 사회에 묻는 보도로 보육교사의 열악한 교육 환경과 업무 강도 등을 설명하며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 CCTV 관련 뉴스를 형식적 프레임과 내용적 프레임 측면에서 분석해봄으로써 뉴스에서 형성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담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집 CCTV 관련 뉴스의 형식적 프레임 분석 결과 ‘사건중심 프레임’과 ‘사건+주제중심 프레임’이 주로 나타났다. ‘사건+주제중심 프레임’의 경우에도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보다는 사건 자체만을 보도하는 데 더욱 치중하고 있었다. 이는 ‘사건중심 프레임’에 대중들이 노출될 경우 공적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사회나 구조적 힘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그룹의 행동으로 돌려 처벌을 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 Iyengar와 Simon(199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어린이집 CCTV 관련 뉴스

가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보다는 대중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단순한 사건 보도에 치우쳐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어린이집 CCTV 뉴스 보도는 사건에 대한 표면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 보도가 사회에 책임 소재를 두고 다각적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하는 주제중심 프레임이 아닌 사건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흥미 위주로 보도하는 사건중심 프레임에 치우쳐 있음을 밝힌 김훈순(2004)과 정의철과 이창호(201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때문에 어린이집 CCTV 관련 뉴스가 아동학대 사건을 공론화시키고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아동학대의 원인을 가해자인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선행연구(유계숙, 양수진, 조선아, 2016; 이명순, 2017)에서는 아동학대의 원인을 교사 뿐 아니라 영유아 개인의 특성, 보육교사의 전문성 수준, 교사와 시설장 간의 지지적인 관계, 학부모 요인, 어머니와 보육교사와의 관계, 어린이집 시설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을 제시함으로써 아동학대 사건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뉴스보도는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아동학대의 원인을 교사 개인의 자질에만 국한하여 보도하기보다 교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그 외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내용적 프레임 분석 결과, ‘갈등프레임’에서는 개인 간 갈등인 부모-교사 갈등이 나타났다. 부모-교사 간의 갈등상황은 기사 전반의 흐름에서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부모 현장 인터뷰나 앵커멘트 등을 통해 서로가 대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인간흥미 프레임’에서는 한 기사 내에서 동일한 학대 장면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보여주거나 학대 장면을 클로즈업하여 부각시켰으며, 학대영상과 함께 영상에 대한 내레이션이나 학부모의 감정이 드러난 인터뷰를 오버랩하는 등의 보도 경향을 보였다. ‘도덕성 프레임’에는 보육교사나 보육기관 운영자들의 비도덕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보도태도를 취하고 있었으며, ‘책임 귀인 프레임’에서는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 차원이 아닌 교사 개인에게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어린이집 CCTV 뉴스에 나타난 프레임들은 뉴스를 시청하는 대중들이 보육교사에 대한 특정 담론을 형성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때문에, 뉴스 보도 시 선정적인 학대

장면이나 보육교사의 잘못만을 따지는 내용만을 노출시킬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의 배경이 되는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맥락을 조명하여 뉴스를 보는 대중들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및 해결책을 고민하도록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뉴스에서는 단순한 흥미위주의 보도보다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대중의 보육교사에 대한 인식개선,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그리고 전문성 확보(이명순, 2017) 등에 대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 심층적인 후속 보도를 이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준웅(2001)은 특정 사건을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프레임에 넣어서 전달하다보면, 시청자들은 영향을 받게 되며 이러한 개인들의 의견이 모여 하나의 여론 즉, 담론을 만들어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 뉴스에서도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배적인 담론을 형성하였다. 먼저, 어린이집 CCTV 뉴스에는 ‘CCTV 만능 담론’이 나타났다. 2015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을 통하여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은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정부는 여론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기관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CCTV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며 보육교사의 학대 의도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교사와 영아의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 보육교사를 감시하는 도구로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김영희, 김두정, 2018). CCTV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CCTV 관련 뉴스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 및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을 CCTV라고 전제하고, 뉴스 보도를 통하여 CCTV 만능 담론을 강화시켜고 있었다. 이러한 뉴스 보도에서 나타나는 CCTV 만능 담론은 보육교사가 철저한 감시의 대상임을 주장하고 있었으며, CCTV를 통해 보육교사에 대한 감시가 잘 이루어질수록 아동학대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를 내포한다. 하지만 푸코의 파놉티콘 개념을 차용한 김종훈(2017)의 연구에 따르면 CCTV의 설치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다. CCTV는 아동학대 장면을 담아내는 도구로서 사후조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는 차원까지 기능하지 못한다. 오히려 CCTV는 교사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규제 및 억압하도록 하여 교사가 교권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김종훈, 2017). 동시에 CCTV를 통한 감시체계는

부모와 교사 간의 비정상적인 권력구도를 생성하여 교사-부모 관계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부모와 교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의된 인식과 협력적 관계 구축을 제안(유계숙 외, 2016)하며 보육교사를 전문가로서 보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 변화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이명순, 2017). 따라서 CCTV 설치 및 시설감독과 같이 규제와 감시를 아동학대 방지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보육교사 자격조건과 양성과정 그리고 보수교육 점검(김의향, 박진옥, 2018), 아동 대 교사 비율이나 직무 환경 개선, 보육교사와 부모 간의 협력적인 관계구축(유계숙 외, 2016) 등의 다양하고 근원적인 방안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단편적인 대안으로 일시적인 현상을 막을 수도 있지만, 아동학대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원인과 해결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린이집 CCTV 뉴스에는 보육교사에 대한 ‘범죄자 담론’이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보도멘트와 무관한 아동학대 장면을 수없이 반복해서 배경으로 제시하고, 경찰서나 검찰의 정문, 경찰서 로고가 박힌 깃발이나 팻말 등을 학대 장면과 교차하며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식의 보도 특성은 보육교사 범죄자 담론을 확고히 한다. 또한 ‘거짓말’ 하고 ‘은폐’하려는 보육교사의 모습을 강조하고 거듭 보도하는 것은 대중들이 보육교사를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찍도록 하여 범죄자 담론에 무게를 더한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사회적 낙인을 노예 혹은 범죄자에게 부여하였으며(Goffman, 1963/2009, 안지호, 현주, 2018 재인용),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적인 모습과 실제 모습 간 괴리가 발생할 때 낙인을 찍었다(안지호, 현주, 2018). 이와 같이 사람들이 보육교사에 대해 떠올리는 이해심이 많고 친절함 이미지와는 달리(손원경, 김미진, 2016) 어린이집 CCTV 뉴스에 비춰지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모습은 보육교사에게 범죄자와 같은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을 찍는다. 기존의 뉴스보도를 통해 형성된 ‘보육교사 범죄자 담론’은 아동학대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돌리며 보육교사를 CCTV 설치를 통해 감시해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여게끔 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구조적 책임을 간과하게 만들었다. ‘보육교사 범죄자 담론’은 보육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다양한 대상

과 관계를 맺으며 심리적 소진을 겪는 보육교사(정재은, 김성현, 2018)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보육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보육교사에게 사회적 지지는 이직의도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치며 보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였으며(권영란, 문영경, 2016) 보육교사의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보육의 질을 결정한다는 점도 밝혀졌다(이숙자, 공병호, 성영화, 2011). 영유아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보육교사가 직업소명의식을 갖고 보육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가 요구되므로(성경주, 황성원, 2017) 특정 보육교사의 잘못된 지적하되, 뉴스보도를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가 생산적인 담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뉴스보도를 구성하고 시청자에게 전달할 때 뉴스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부 보육교사의 잘못이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신중하게 보도할 필요가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CCTV 뉴스에는 보육교사에 대한 ‘비전문가 담론’이 나타났다. 푸코는 보이는 담론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배제된 담론에도 관심을 두었는데(Foucault, 1975/2016), 본 연구에서도 뉴스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보도 내용에 함축적으로 내재되어 있었던 보육교사에 대한 비전문가 담론을 포착할 수 있었다. 비전문가 담론은 도덕성 프레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교사를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끊임없이 묘사하였고, 학대 사건을 언급할 때 “또”, “여전히”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학대가 당연하게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불신의 대상임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었다. 또한 뉴스보도 속 부도덕한 보육교사의 이미지는 교사에게 기대되는 전문적인 자질 중 하나인 바람직한 인성(조경자, 2007)이 부족한 비전문가 집단이라는 인식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뉴스보도 속 보육교사는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며,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전문가는 아니었다. 이렇듯 뉴스보도를 통해 생성된 ‘CCTV 만능 담론’, ‘보육교사 범죄자 담론’, ‘보육교사 비전문가 담론’은 교묘하게 아동학대와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보육교사에 대한 대중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배적인 담론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직업의식을 가진 보육교사가 현장

에 유입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데, 양혜영(2018)은 예비 보육교사들은 직업에 대하여 내재적으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동학대 문제로 뉴스에 등장하는 보육교사의 외현적 이미지 사이에서 갈등하며 직업 선택 과정에서 불안을 표출하는 경우가 보인다고 밝혔다. 대중매체가 보육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재생산해내며 질 높은 교사의 현장 유입을 막는 악순환의 고리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현장에 전문성을 가진 질 높은 교사의 유입이 시급하기 때문에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되는 교사를 선별하는 자격 제도 보완과 더불어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보육교사 이미지를 재점검하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 뉴스에 담긴 보도가 절대적이고 공정한 사실이 아닌 특정한 지식과 담론을 생산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대중매체의 이데올로기 전달체로서의 기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CCTV 관련된 프레임 분석연구는 분석대상 수가 클수록 거시적 흐름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따라서 추후 어린이집 CCTV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KBS 뉴스 외의 다른 방송의 뉴스를 포함시키거나, 또한 뉴스 외의 신문, 공익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대상으로 연구한다면 담론 형성의 양상을 더욱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CCTV 속 내포된 보육교사 관련 담론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에는 보육교사 외에도 영유아, 부모 등과 같은 관련 당사자들의 이미지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들과 관련한 담론을 추가적으로 살펴본다면 대중매체가 지식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보다 비판적으로 고찰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영란, 문영경(2016).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이직 의도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과 직무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보육학회지**, 16(1), 99-119. doi:10.21213/kjcec.2016.16.1.99
- 권인숙, 이화연(2011). 성폭력 두려움과 사회통제: 언론의 아동 성폭력 사건 대응을 중심으로. **아시아**

- 여성연구, 50(2), 85-118.
- 김명희(2000). 뉴스 프레임의 효과와 작용 방식에 관한 연구: 가치 선택 프레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김두정(2018). CCTV 의무화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 일반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2), 311-317. doi:10.5762/KAIS.2018.19.2.311
- 김윤정(2005). TV 뉴스의 불안 위도 핵폐기물처리장 보도 프레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의향, 박진옥(2018). 보육교직원 자격과 재교육 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 고찰. **한국보육학회지**, 18(2), 129-145. doi:10.21213/kjcec.2018.2.129
- 김중훈(2017). Foucault의 파놉티콘 개념에서 본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대한 비판적 이해. **교육사상연구**, 31(4), 47-64. doi:10.17283/jkedi.2017.31.4.47
- 김해연, 강진숙(2016). 국내 아동학대 뉴스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원영이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0(6), 283-312.
- 김희승(2016). 잔혹, 엽기, 선정성에 노출된 범죄보도 실태와 원인. **관혼저널**, 138, 63-69.
- 김훈순(2004). 한국 언론의 젠더 프레임: 범죄뉴스와 여성. **한국 언론정보학보**, 27, 63-91.
- 변진경(2017. 10). 한국 언론사 다시 쓴 손석희와 JTBC [뉴스룸]. <https://www.sisain.co.kr>에서 2018년 6월 6일 인출
- 보건복지부(2015a).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5b). **영유아보육법**. 서울: 보건복지부.
- 설진아, 조아라(2017). 북한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지상파 방송보도 프레임 분석: 2013년 장성택 처형 사건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7(2), 129-163. doi:10.14696/jcs.2017.06.17.2.129
- 성경주, 황성원(2017). 보육교사의 직업소명의식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7(4), 71-90. doi:10.21213/kjcec.2017.17.4.71
- 손원경, 김미진(2016). 일반인이 인식하는 어린이집 교사의 이미지. **한국영유아보육학**, 98, 89-112.
- 안지호, 현주(2018). 북한이탈주민의 낙인정보 관리에 관한 연구: 고프먼(E. Goffman)의 낙인이론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27(1), 67-94. doi:10.18350/ipaid.2018.27.1.67
- 양승목(2010). 언론을 보는 눈. 이정선(편). **세상을 보는 눈: 인문(개정판)**(pp. 81-111). 서울: 이슈투데이.
- 양정혜(2010). 뉴스 미디어가 재현하는 범죄현실: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의 프레임. **언론과학연구**, 10(2), 343-379.
- 양혜영(2018). 예비보육교사의 보육교사 이미지에 대한 인식과 자아이미지 탐색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8(2), 147-165. doi:10.21213/kjcec.2018.18.2.147
- 유계숙, 양수진, 조선아(2016).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원인 인식 및 대책 요구도. **육아 정책연구**, 10(1), 241-268.
- 유정선(2009). 김대중 대통령 서거에 관한 언론보도의 뉴스 프레임 분석: 조선일보 · 중앙일보 ·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순(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대응방안. **아동보호연구**, 2(1), 99-120.
- 이숙자, 공병호, 성영화(2011). 교사 · 유아의 상호작용과 보육 교사변인간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1(1), 1-18.
- 이준웅(2001). 갈등적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 구성 방식이 의견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46(1), 441-482.
- 이희영, 김정기(2016). 질적 메타분석을 통한 뉴스 프레임의 유형. **한국언론학보**, 60(4), 7-38.
- 정의철, 이창호(2017).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뉴스 프레임 분석과 대안 모색: 평택 아동학대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1(2), 77-108.
- 정재은, 김성현(2018). 정서노동이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원장 리더십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보육학회지**, 18(1), 193-216. doi:10.21213/kjcec.2018.18.1.193
- 조경자(2007). 예비유아교사들이 인식한 좋은 유아교사의 특성.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561-568.
- 최민재(2004). **TV뉴스와 영상이미지**. 서울: 한국언론

- 재단.
- 최은정, 곽은순(2017). 신문과 TV뉴스에 나타난 보육 교사의 신뢰이미지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2(6), 95-117. doi:10.20437/KOAECE22-6-05
- 한국언론진흥재단(2017).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2017**.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황인성(2007). 미셸 푸코 재고찰: 담론 이론이 영상문화 연구에 대하여 갖는 함의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5(4), 121-136.
- 황지영(2014). 뉴스 텍스트의 은퇴담론 분석.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8(2), 283-308.
- KBS(2015.12.14). 또 어린이집 '아동학대'...책상 밀어 치아 부러뜨려. <http://news.kbs.co.kr>에서 2018년 5월 26일 인출
- KBS(2016.01.28). 어린이집 아동 학대 의혹...경찰 조사. <http://news.kbs.co.kr>에서 2018년 6월 6일 인출
- KBS(2016.02.18). 16개월 유아 승합차에 치여 숨져. <http://news.kbs.co.kr>에서 2018년 5월 26일 인출
- KBS(2016.05.03). [뉴스 따라잡기] CCTV 있어도...또 어린이집 학대 논란. <http://news.kbs.co.kr>에서 2018년 5월 26일 인출
- KBS(2016.05.22). 목 조르고 때리고...어린이집 학대 동영상 공개. <http://news.kbs.co.kr>에서 2018년 5월 26일 인출
- KBS(2016.05.24). [뉴스 따라잡기] 아이 목을 조르고...또 어린이집 '아동 학대'. <http://news.kbs.co.kr>에서 2018년 5월 26일 인출
- KBS(2016.09.08). 어린이집에서 3살 남아 숨져...보육 교사 긴급체포. <http://news.kbs.co.kr>에서 2018년 5월 26일 인출
- KBS(2016.12.12). 어린이집 CCTV 공개 실험...효과는?. <http://news.kbs.co.kr>에서 2018년 5월 26일 인출
- KBS(2016.12.13). [Go!현장] 또 어린이집 아동 학대...두 얼굴의 보육교사. <http://news.kbs.co.kr>에서 2018년 5월 26일 인출
- KBS(2017.02.20). "아이가 잘못해 화상" ... CCTV 보니 '거짓말'. <http://news.kbs.co.kr>에서 2018년 5월 26일 인출
- KBS(2017.02.24). 아동학대 10년 새 3배 ↑...대책 실효성 있나?. <http://news.kbs.co.kr>에서 2018년 5월 26일 인출
- KBS(2017.04.27). [심층리포트] 아동학대해도 또 '평가 인증'...누굴 믿고 아이 맡기나. <http://news.kbs.co.kr>에서 2018년 5월 26일 인출
- KBS(2017.05.02). 사전 고지 후 단속...유명무실 CCTV 점검. <http://news.kbs.co.kr>에서 2018년 5월 26일 인출
- Entman, R. M. (2013). **권력의 투사법: 뉴스 프레임 여론 미국의 대외정책**(안병규 역).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4 원저 발간).
- Foucault, M. (2016).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개정판)(오생근 역). 서울: 나남(1975 원저 발간).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ffman, E. (2009). **스티그마: 장애의 세계와 사회적응**(윤선길 역). 서울: 한신대학교 출판사(1963 원저 발간).
- Iyengar, S. (1990). Framing responsibility for political issues: The case of poverty. *Political Behavior*, 12(1), 19-40. doi:10.1007/BF00992330
- Iyengar, S., & Simon, A. (1993). News coverage of the gulf and public opinion: A study of agenda- setting, priming, and framing. *Communication Research*, 20(3), 365-383. doi:10.1177/009365093020003002
- Semetko, H. A., & Valkenburg, P. M.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93-109. doi:10.1111/j.1460-2466.2000.tb02843.x
- van Dijk, T. A. (2007). *Discourse and Social Interaction*, London: Sage.

Frame Analysis on the News About CCTV in Day Care Center

Ji Eun Oh

Graduate Student,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Hoe Wook Chung

Associate Professo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Bit Na Ra Yun

Graduate Student,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process of framing child abuse cases through the news coverage after the enforcement of mandatory CCTV installation policy which was initiated in 2015.

Methods: The research uses the revised and supplemented frame analysis tools developed by Iyengar (1990) and Semetko and Valkenburg (2000) to investigate 25 broadcasting news reported by KBS, from September 2015 to December 2017.

Results: First, according to the formal analysis, the reports on abuse cases prove to be either a mixed or episodic frame which covers the cases heavily based on a particular incident rather than holistically looks into the situation. Second, in content analysis, child abuse news is delivered mainly through “human interest frame.”

Conclusion/Implications: The study identifies three dominant discourses formed as a result of the child abuse CCTV news: ‘CCTV is a all-around player’ discourse, ‘preschool teachers as potential criminals’ discourse and ‘preschool teachers as nonprofessionals’ discours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that mass media do not always say the truth, but frame social issues within an ideological delivery system.

Keywords: child abuse, closed-circuit television, day care center, frame analysis

Received July 30, 2018

Revision received August 25, 2018

Accepted September 6, 2018